

선한 일을 알았으면 행하라

야고보서 4:11-17, 찬송가 217장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 실수하고 넘어졌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11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 12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 13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 14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 15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 16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 17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

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 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 16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 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3 본문 설명

야고보는 앞에서 말의 실수와 거짓된 지혜, 교회 내의 분란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상호 비방하지 말 것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의 심판자를 자처하는 것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행동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습관처럼 헐뜯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야고보는 아무 것도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범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4 삶의 나눔

5 함께하는 기도

6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목상

1 목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